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崔 瑞 泳
印刷人 崔 瑞 泳

發行所
서울대학교 同窓會

郵便番號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 18-2
電話: 702-2233~5, 717-8536~7.
FAX: 703-0755.

銀行지 로 番號: 7500875
對 替 口 座: 010017-31-0621565

100億 科學研究基金 조성 결의... 92년 定總



아름답게 올려퍼진 和聲의 합창 불기운이 화사한 3월의 마지막 週末에 열린 금년도 定期總會. ① 새 얼굴이 많아 총회장에 活氣가 넘친다 ② 취임 人事를 하고 있는 崔主鎬회장 ③ 분위기 고조에 汗流한 서울대 OB合唱團 ④ 우수支部에 대한 表彰 ⑤ 총회후에 열린 연회 장면.

冠岳春秋

지난 3월 28일(土) 오후 2시 힐튼 호텔에서 본同窓會 금년도 定期總會가 있었다. 20만에 육박한 회원들 가진 회답게 예년과 같이 다수의 회원이 참석하고,母校에서도 金鍾云 총장을 비롯하여 副總長, 大學院長이 다 참석하였으며, 趙完圭 教育部長官과 申泰煥, 尹天柱 經濟部長官 참석했다. 특별히 젊은 세대의 참석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또한 20여명으로 구성된 서울대 OB合唱團이 회의 후 진행된 여흥 사이사이 싱그러운 노래를 보내 장내 분위기를 밝고 생동감 있게 해준 데서 例年과는 다른 鼓舞을 느꼈다.

이번總會는 任員 개선이 있어 자연히 주목을 끌게 되었다. 총회에서 崔主鎬會長을 다시 모시기로 滿場一致의 가결이 있었고, 副會長 團 구성은 會長에게 一任키로 하였으며, 監事는 2인 다 새로 選出한 것이다.

이로써 과거 8년간 會長으로서 同窓會發展을 위해 수많은 艱辛한 일을 해온 崔會長이 더욱 同窓會와 母校를 위해 內實의 發展을 기하게 되었다. 崔會長은 1987년 同窓會의 오랜 宿願이었던 會館 건립의 꿈을 現實化시킨 것으로 同窓會와 冠岳會의 활동이 活性化하여 會報를 받아보는 회원수가 破竹의 勢로 증가하고 母校在學 後輩들을 위한 獎學金의 支給額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 單大·院의 同窓會의 활동이 본格的으로 활성화하고 國內의 각 地域 또는 職場 단위의 支會와 分會의 組織과 활동이 活潑해지고는 동시에 歐美各 地域의 支部의 結成과 活動 역시는 著目한 成果를 올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母校와의 긴밀한 紐帶와 同窓會 임원들 비롯하여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海外 支部 結成에는 趙完圭 總長의 在任時 發된 적극적인 協助가 컸음을 잊을 수 없다.

또한 同窓會의 첫째 親睦의

同窓會의 새로운 跳躍

면에서 보아도 가을의 登山大會는 매년 幾千名의 대가족이 丹楓으로 이글거리는 冠岳의 母校 樹木園에서 原色의 楓葉을 배품고 있다. 그 참여도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그를 위한 有志 同窓會들의 뒷받침 또한 그 質이나 量 면에서 해마다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冠岳의 綜合化를 계기로 본格化한 서울대 同窓會는 會報를 連通管의 血脈으로 삼아 서서히 紐帶感이 형성돼 가고, 이제 외서는 서울대 人으로서의 一體感이 造成돼 어디서 만나건 무조건 先輩 後輩로 통하게 되었다. 이러한 一體感은 同窓會의 紐帶를 더욱 긴밀히 함으로써 國家와 社會 발전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行政·司法 兩府에서는 물론 立法府에서도 중요한 位置에서 政策 결정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면에서 이러한 同窓會의 유대와 一體感은 國家와 社會 발전에 善意의 보탬이 된다 하겠다. 옳은 일을 더욱 所信껏 펼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적어도 朝鮮朝의 선비 精神의 現代的 具現者로서, 利己·利派를 떠나 크게 國家·社會의 발전과 隆興의 礎石과 棟樑이 될 良心의 結晶體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서울大學에 國家와 國民이 거는 期待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 기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안 되고 母校의 名譽를 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참(眞) 同窓會개인이 다 大悟覺醒할 때, 大韓民國은 5천년의 文化 傳統을 지닌 나라로서, 다시는 35년간의 卑劣한 恥辱을 가져올 것이 없이 길이 隆盛發展하리라. 우리의 任務가 이만큼 크다. 모교의 科學發展 基金 百億의 公約이 지켜져 제2의 跳躍을 이룰 기대한다.

崔主鎬회장 재선임

副會長 5명 · 監事는 모두 교체

동창회는 지난 3월 28일 하오 2시 서울호텔 컨벤션센터에서 9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4대 회장에 崔主鎬(우정) 회장을 재선임했다. 金鍾云(모교총장)을 비롯해 5백여명의 동문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또 신임監事에 李基雄(54년 法大卒 · 三喜)을 재선임했다.

이날 회장에 재선임된 崔主鎬는 지난 76년 동창회 崔會長 취임을 시작으로 82년 首席부회장을 거쳐 84년 10대 동창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11 · 12 · 13 대를 거쳐 이번엔 14대 회장에 재선임됨으로써 5대(10년) 재임기간을 완수하게 됐다.

한편 副會長은 崔會長에게 선임을 임명키로 한 바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날 회장에 재선임된 崔主鎬는 지난 76년 동창회 崔會長 취임을 시작으로 82년 首席부회장을 거쳐 84년 10대 동창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11 · 12 · 13 대를 거쳐 이번엔 14대 회장에 재선임됨으로써 5대(10년) 재임기간을 완수하게 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우수지루에 대한 表彰과 함께 91년도 동창회決算에 대한 승인도 있었다. 이날 승인된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창회

의 총수입은 9억 2천 27만 8천 9백 81원이고 지출은 사업비 3억 2천 9백 41만 1천 1백 51원 관리비 8천 7백 22만 9천 8백 30원 등 4억 1천 6백 64만 9백 81원으로 나머지 5억 3백 63만 8천 91원을 獎學法人인 冠岳會 기금으로 전액 출했다. (定總詳報 5面)

동창회 제14대 會長團 · 監事명단(新任고딕)

職位	姓名	出身大學 및 現職	職位	姓名	出身大學 및 現職
會長	崔主鎬	39년 農大卒 宇成二科會長	副會長	趙南煜	57년 法大卒 三扶土連會長
副會長	河永基	48년 文理大卒 第一生命保險社長	副會長	鄭宗澤	58년 法大卒 前國會議員
監事	金相廈	49년 文理大卒 大韓商會會長	監事	金璟東	59년 文理大卒 母校社會大教授
監事	具平會	51년 文理大卒 弘익金星商會會長	監事	李俊鎔	60년 商大卒 大林藥業副會長
監事	白樂晚	51년 醫大卒 仁濟大學校總長	監事	李洙彬	61년 商大卒 三星고급製藥室長
監事	金在淳	52년 商大卒 國會議員	監事	朴容晟	62년 商大卒 東洋麥酒副會長
監事	高在清	52년 商大卒 前國會議員	監事	李祥義	66년 藥大卒 前科技處長官
監事	李季順	52년 師大卒 前政務2長官	監事	玄在賢	71년 法大卒 東洋고급會長
監事	金善弘	55년 工大卒 起亞고급會長	監事	鄭夢準	75년 商大卒 國會議員
監事	徐廷和	55년 法大卒 國會議員	監事	李基雄	54년 法大卒 三喜投資金融會長
監事	李爽熙	55년 法大卒 大字證券會長	監事	李柄宣	57년 商大卒 보람銀行長

올 同窓會 예산 6억 2천만원

親睦 등산대회 支部長 회의도 열 계획

동창회 1992년도 예산은 총 6억 2천 2백 70만원으로 확정됐다. 슬로프장조 주된 수입은 특별회비, 분담금, 회비등의 經常 수입에서 2억 9천 2백 70만원, 회보광고료, 찬조금의 經常外 수입에서 3억 3천만원이다.

올해의 주요 사업은 △同窓會報 및 任員名簿 발간 △組織 강화 △親睦 사업 △母校 및 支部分회 △제반 會議 운영 △재단법인 冠岳會 기금 조성 지원 등이다.

會報발행은 전회원 電算化를 계기로 보다 많은 동문이 회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억 7천만원이 책정됐고, 등산 대회 및 각종 축하행사와 경조비등의 친목사업비가 5천만원, 任員명부 발간, 會報 보급 확대 및 신규회원 발굴 등 組織強化費가 9천만원이다.

또 支部分회 사업비가 1천 4백만원, 定期總會 등 각종 회의비와 電算化 기금이 1천 7백만원과 2천만원, 모교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이 책정되었다. 총 예산규모에 비해 모교지원사업비가 이처럼 적은 것은 모교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獎學金과 教授연구비는 재단법인 冠岳會에서 전담(올해

副會長 11명으로 늘려

執行部 대폭 補強

大學院同窓會(회장 金道烈)는 최근 副會長을 4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등 집행부를 대폭 보강했다. 부회장은 비교적 單大별로 고루 배정됐는데 그名單은 다음과 같다.

▲姜斗植(모교 人文大) ▲姜命圭(모교 社會大) ▲嚴圭白(양정고 교장) ▲沈昞求(모교 經營大) ▲李光魯(모교 農大) ▲玄在善(모교 農大) ▲裴載湜(前 모교 法大) ▲金宗西(前 모교 醫大) ▲金相仁(前 모교 醫大) ▲韓鏞徹(前 모교 醫大) ▲金奎植(前 모교 醫大)

大學院同窓會는 이와 함께 金完鎭(모교 人文大) 수(동문)을 비롯한 理事 1백 37명도 새로 선임했다.

任員名簿 발간, 組織強化 주력

豫算 내역

收入部	項目	91年度豫算	92年度豫算
經常收入	特別會費	11,600,000	11,600,000
	分擔金	110,000,000	112,500,000
	會費	3,100,000	3,100,000
	入會金	5,500,000	5,500,000
	一般會費	160,000,000	160,000,000
小計		290,200,000	292,700,000
經常外收入	會報廣告料	120,000,000	120,000,000
	名簿	120,000,000	25,000,000
	收入利子	10,000,000	60,000,000
	贊助金	120,000,000	125,000,000
	雜收入		
小計		370,000,000	330,000,000
合計		660,200,000	622,700,000
前年度移越		368,512,896	
總計		1,028,712,896	622,700,000

支出部	項目	91年度豫算	92年度豫算
人事費	會報發行	149,728,000	170,758,920
	雜誌事業	35,000,000	35,000,000
	圖書費	15,000,000	15,000,000
旅費	學生交際	5,000,000	5,000,000
	母校交際	5,000,000	5,000,000
	支部分會	4,000,000	4,000,000
	交際事業	10,000,000	10,000,000
	組織強化	72,000,000	90,000,000
	總會	9,800,000	9,800,000
	常任理事會	3,000,000	3,000,000
	其他會議	8,000,000	5,000,000
電氣化基金		20,000,000	20,000,000
宣傳發刊費		75,000,000	
基金造成		3,000,000	3,000,000
冠岳會基金轉出		505,500,000	5,500,000
小計		920,028,000	381,058,920
人事費	給與	46,379,000	29,964,000
	賞與金	15,780,000	9,988,000
	諸手續	2,160,000	4,800,000
	福利		2,500,000
旅費	交通費	4,500,000	3,000,000
	出張費	3,000,000	3,000,000
	通信費	4,700,000	4,700,000
事務費	用品費	960,000	1,500,000
	備品費	3,000,000	2,000,000
	印刷費	5,500,000	4,000,000
	圖書費	1,000,000	1,000,000
税金及公課金			1,106,600
車輛維持費			284,920
保險料		1,500,000	3,410,000
雜費		1,000,000	1,000,000
減價償却費			2,504,285
退還金及不當金納入額		19,205,896	20,436,641
雜損			
小計		108,684,896	97,759,446
其他附價稅追徵金			44,480,900
合計		1,028,712,896	523,299,266
次年度移越		0	99,400,734
總計		1,028,712,896	622,700,000

알찬 발전과 단합을 위하여
여동문 모두가 노력해 주
것을 부탁하고 앞으로 화
성화를 위한 각종 모임을
더 자주 가질 계획임을 밝
혔다.

會
詳
報

는 과학기술 경쟁시대로

참석, 선배동문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기도 했



의회의를 가진
主鎬會長을

신결과崔
재선임하

신임 副會長·監事 프로필

政務2長官 지낸 女性界 대표



李季順 부회장
< 52년 師大卒
前 政務第2長官 >

女性界를 대표하여 이번 會長團에 처음 참여하게 된 李季順부회장은 지난해까지 政務제2長官으로서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위해 힘썼던 인물. 1927년 慶南 金海 태생으로 52년 모교 師大를 졸업하고 慶南中 교사를 거쳐 63년 母校에 부임, 27년

간 교수로 재직했다. 77년부터 전문직 여성클럽 한국연맹회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을 역임하면서 사회활동 전면에 나서게 됐다. 원리원칙을 중시한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영어교육 이론과 지도 방법」, 「韓·日語 대조분석」 등의 저서가 있다.

母校와의 橋梁역할 기대 커



金璟東 부회장
< 59년 文理大卒
모교 發展基金상임이사 >

金璟東부회장은 崔희장이 모교와의 긴밀한 관계를 強化하고, 보다 원활한 지원체제를 갖추고자 모교측 대표로 영입한 케이스. 金부회장은 59년 모교 文理大를 나와 68년에 文理大 강사로 출발하여 그간 사회과학연구소장, 기획실장 등을 역임하다가 모교 발

전기금이 설립되면서 常任理事직을 맡아왔다. 72년 美京네브라다에서 사회학 博士학위를 받은 金부회장은 국내 사회학계의 중진으로 「한국사회를 진단한다」 「人間主義사회학」 「부드러운 사회를 위하여」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36년 경북 安東生.

3選 議員으로 民自黨 브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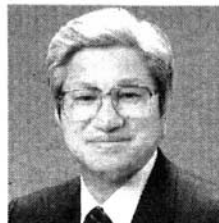


徐廷和 부회장
< 55년 法大卒
國會議員 >

徐廷和부회장은 33년 慶南 忠武 출신으로 55년 法大를 졸업했다. 忠南知事·내무부長官·平統사무총장등 주요 공직을 통한 경륜을 기반으로 85년 12代 國會에 등원, 이번 14代에 이르기까지 3選을 거치는동안 黨內의 핵심 브레인으로도 똘하고 있다. 특히 지방

행정 분야에 있어 남다른 해안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그간 「都市問題概說」 「韓國내무행정발전론」 등의 저서를 통해 國政의 방향을 갈파하여 주목을 받은바 있다. 韓日의원연맹 副會長·한타의원전선協會長등을 역임하며 국제교류에도 기여해왔다.

科技處장관 11·12代 議員지내



李祥義 부회장
< 66년 藥大卒
前 科技處長官 >

李祥義부회장은 38년 慶北 靑道 출신으로 66년 藥大를 졸업하고 모교 大學院에서 博士학위를 받은 科學者. 崔희장이 科學技術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이번 副會長 발탁에 크게 작용했으리라는 후문. 辦理士자격증도 가지

고 있는 李부회장은 11·12代 國회의원을 역임하며 民正黨 政策研究室長, 2천년대국가발전연구특위장등의 요직을 두루 지내다 88년 科技處 장관에 발탁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선진화에 크게 힘썼다. 현재는 창원에 있는 韓國機械研究所 이사장으로 재임중.

檢事출신의 財界 실력자



玄在賢 부회장
< 71년 法大卒
東洋그룹 會長 >

東洋그룹을 이끌고 있는 玄在賢 신임부회장은 49년 서울출신으로 71년 法大를 졸업했다. 재학중 司法高試에 합격, 검사로

활동하다가 77년 동양그룹에 입문했다. 그동안 東洋시멘트, 동양증권, 동양베네파트생명보험, 동양창업투자 社長을 거쳐 89년 10월 동양그룹 회장에 취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탄탄하고 건실한 기업경영으로 財界에서 부러워할 만큼의 성장을 거듭해 왔다. 또 모교발전을 위해 「瑞南 해외석화초청강좌기금」을 회사, 교수와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문의 길을 여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第一銀상무, 忠淸銀行長 역임



李基雄 감사
< 54년 法大卒
三喜投資金融 會長 >

이번에 선임된 동창회의 두 監事는 모두 銀行長 출신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忠南 燕岐태생인 李基

雄감사는 올해 63세로 54년 法大 法學科를 졸업했다. 이듬해 第一銀行에 입행, 금융계와 인연을 맺게 된 李감사는 제일은행 무교·충무로·명동등 서울 시내 각 지점장을 거쳐 80년 이사로 승진했다. 李감사는 85년 常務를 끝으로 30여년간 재직했던 제일은행을 떠나 忠淸銀行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해까지 6년간을 은행장으로 재임하다가 현재는 三喜投資金融(株)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韓一銀行서 잔뼈굵은 金融人



李柄宣 감사
< 57년 商大卒
보람 銀行長 >

忠北 永同출신인 李柄宣감사는 57년 모교 商大를 졸업한후 곧바로 韓一銀行에 入行, 35년간을 줄곧 금융계에 몸담

아 오고 있다. 韓一銀行의 서울市內 각 支店長과 본점영업부장을 거쳐 80년 理事로 승진했고 이후 常務 監事 專務를 거쳐 순탄하게 은행장까지 오른 인물. 李감사는 90년 韓一銀行을 퇴임하고 韓一리스 회장, 韓國투자금융 사장을 거쳐 지난해 9월 보람은행이 출범하면서 초대銀行長에 취임,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신설은행의 어려움을 무난히 극복, 金融界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金融大家이다.

3·24 總選 이후의 政治 向方

제6공화국 출범이후 두번째로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執政黨인 새정치국민회의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다. 民主黨이 일미간의 의석을 잃더라도 여전히 안정된 다수 세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출선전의 지배적인 예측은 어긋나고 말았다. 既成野黨인 民主黨의 전제력은 강화되었고, 제3당인 國民黨은 청당원지 불과

두달만에 원내 교섭단체를 독자적으로 구성할만한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無所屬 당선자가 20여명에 이르렀는데도 최근의 선거에서는 드물게 나타난 결과이다.

제13대 총선이 낳았던 與小野大가 정치인들에 의하여 巨與小野로 변모되었으나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與小野大를 재현시켰다. 집권당의 독주가 능성이 배제되고 다원적인 경쟁이 전개될 민

자, 민주, 국민의 3당 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결과는 통치세력의 정책수행실적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반영한다. 이번 총선거의 결과에 실 패한 근본적 원인은 민자 당정권이 국민의 기대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盧大統領의 선거를 통해 집권한 이래 정부와 권위주의의 청산과 정치적 자유의 신장에 관심을 기울여온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민생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정부가 내세우는 부양의료의 실적은 국민의 일상생활과는

나소거리가 있다. 보통사람들이 절감하게 된 바는 物價와 家計의 불안정, 주택정책의 비일관성,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과 공직 사회 부패의 만연과 같은 財政과 失政의 문제였던 것이다.

민주화시대의 국민은 독재자의 專權에 과감히 저항하지만 그렇다고 취약한 정치적 지도력을 원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다양한 세력의 상충된 요구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거나 특정세력의 포로가 되는 것을 국민이 좌시하지 않는다. 3당통합 이후 국회에서 속출한

발치기 사태는 정부여당의 조정과 관리의 능력에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민주화 시대에 걸맞은 정치와 경제,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정립되지 못함으로써 재벌의 창업자가 급기야 정당을 직접 창당하고 집권당의 지 지기반을 잠식하여 도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총선을 통하여 우리 국민은 정치가 변하여야 한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출하였다. 민주당의 후보로서 신진세력의 상당수 인사가 국회에 진출하게 된 것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수요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또한 국민은 실질적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이를

향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야 한다.

앞으로 전개될 정치경쟁의 양상과 소위 大權의 向方에 관하여 언급하자면, 이번 총선거 이후부터 금년말의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과 국민당을 통하여 원내세력의 영입을 통하여 정쟁이 빚어질 것이다. 민자당내에서는 5월 초에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가 결정되더라도 총선거결과를 둘러싼 인색한 정이 완전히 해소되거나 패배한 계파가 결과에 승복할 것이 라고 장담하기 쉽지 않

時論

執權黨 獨走가 능성은 일단 배제

大選 때까지 불확실성 增幅될 듯

다소 거리가 있다. 보통사람들이 절감하게 된 바는 物價와 家計의 불안정, 주택정책의 비일관성,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과 공직 사회 부패의 만연과 같은 財政과 失政의 문제였던 것이다.

민주화시대의 국민은 독재자의 專權에 과감히 저항하지만 그렇다고 취약한 정치적 지도력을 원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다양한 세력의 상충된 요구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거나 특정세력의 포로가 되는 것을 국민이 좌시하지 않는다. 3당통합 이후 국회에서 속출한



金 榮 國
(54년 文理大卒 · 모교 社會大 교수 : 本報 편집위원)

자재가 철저히 청산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토대로 하는 민주정치가 구현되어야 한다. 1997 0년대말 이후 권위주의의 해체는 세계사의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민주국가로 부상하여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위치에 서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선택을 크게 벗어나는 정당간의 입의적 이합집산과 이에 따른 일당우위체제의 복원이나, 다원화를 외면하는 파행적인 정치를 경계해야 한다. 정당간에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정당내에서는 내부적 민주주의가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내실화에 의한 권력의 분산과 文民政治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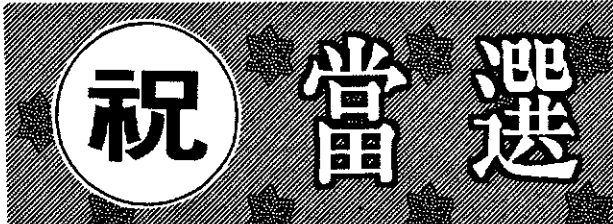
특히 국민이 누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북 통일에 대처하며 국제 경쟁에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이 요구된다. 정치는 국가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현하

국민은 安定基調 깨지 않는 범위에서 變化 원해

성과 지역주의가 극복되어 국민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행히도 14대 국회의원 대표성의 한계를 안고 출발하게 되었다. 종전에 국회에 대표되지 못했던 무시못할 사회세력이 여전히 국회 밖에 존재한다. 소외된 계층의 요구와 이익에 기반을 두는 정당이 의미있는 원내세력으로 성장해야 한다. 國民黨과 같은 정치제도가 사회내 갈등을 흡수하고 갈등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결말을 도출함으로써 갈등관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총선거에서 지역주의는 다소 완화된 감이 있으나,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금년말의 대통령선거에서도 연고지역에서의 표몰이가 전락으로 구사되어 국민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실질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유권자 일단의 냉철한 판단이 절실하다.

내재, 정치과정의 透明性과 정치인의 倫理性이 提高되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쓰는 금권선거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관권선거가 사라져야 한다. 권력과 재벌의 유착관계나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부단히 감시하며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국민당은 기대와 함께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당의 막강한 金力을 바탕으로 政治市場에서조차 독과점적 위치를 강화하려고 할 때 公論은 실종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내부의 나뉘어가기적인 내밀한 의사결정행태도 불식되어야 한다. 公正機關의 공정한 법집행이 진요하며 공직선거에서는 선거공영제가 꾸준히 확대되어야 한다. 음성적 정치자금의 차단과 공개를 위해서 자금의 추적을 가능케 하는 실명제도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金泳三 51년 文理大卒 民自・黨代表最高委員 全國區	 金鍾泌 師大(46년 入學) 民自・黨最高委員 忠南 扶餘	 金孝榮 50년 法大卒 國民・前議員 江原 東海	 楊淳植 49년 師大卒 國民・黨常任顧問 全國區	 朴浚圭 48년 文理大卒 民自・國會議長 大邱 東乙
 朴佑炳 56년 工大卒 民自・13대議員 江原 旌善	 李雄熙 工大(중퇴) 民自・13대議員 京畿 龍仁	 徐廷和 55년 法大卒 民自・13대議員 서울 龍山	 盧仁煥 54년 商大卒 民自・13대議員 慶南 山淸-咸陽	 趙世衡 文理大(50년 入學) 民主・13대議員 서울 城東乙	 趙淳昇 53년 文理大卒 民主・13대議員 全南 昇州	 金在淳 52년 商大卒 民自・13대議員 江原 鐵原-華川	 鄭石謨 52년 法大卒 民自・13대議員 全國區	
 沈晶求 57년 商大卒 民自・13대議員 仁川 南甲	 羅雄培 57년 商大卒 民自・13대議員 서울 永登浦乙	 盧在鳳 57년 文理大卒 民自・前國務總理 全國區	 宋斗灝 56년 醫大卒 民自・13대議員 釜山 江西	 張在植 56년 法大卒 民主・前住宅銀行 長 全國區	 金龍煥 56년 法大卒 民自・13대議員 忠南 大川-保寧	 朴命根 56년 文理大卒 民自・前議員 京畿 坡州	 李榮文 56년 農大卒 民自・13대議員 京畿 利川	
 李桓儀 58년 師大卒 民自・前文化放送 社長 全國區	 李漢東 58년 法大卒 民自・13대議員 京畿 漣川-抱川	 沈明輔 58년 法大卒 民自・13대議員 江原 寧越-平昌	 金瑋泰 58년 法大卒 民自・13대議員 大邱 北	 琴震鎬 58년 法大卒 民自・貿協 常任顧問 慶北 榮州-榮豐	 李慈憲 57년 文理大卒 民自・13대議員 京畿 平澤郡	 李順載 58년 文理大卒 民自・演藝人 서울 中浪甲	 崔燾雄 58년 工大卒 無所屬 경일주조會 長 江原 江陵	
 曹淳煥 60년 文理大卒 國民・前言論人 서울 松坡甲	 尹恒烈 60년 文理大卒 國民・前농림수산부차관보 京畿 光明	 尹榮卓 60년 文理大卒 國民・前議員 大邱 壽城乙	 朴俊炳 60년 文理大卒 民自・13대議員 忠北 報恩-沃川-永同	 朴世直 60년 文理大卒 民自・前서울시장 慶北 龜尾	 金宗鎬 59년 法大卒 民自・13대議員 忠北 槐山	 孫世一 59년 文理大卒 民主・前議員 서울 恩平甲	 金採謙 58년 商大卒 民自・雙龍그룹副會長 慶南 蔚山	
 朴相千 62년 法大卒 民主・13대議員 全南 高興	 金榮珍 62년 法大卒 民自・前內務次官 全國區	 姜祐赫 62년 法大卒 民自・前忠北知事 仁川 南東	 李浩正 61년 齒大卒 國民・齒科醫院長 京畿 水原-長安	 李相得 61년 商大卒 民自・13대議員 慶北 迎日-울릉	 張基旭 61년 法大卒 民主・辯護士 全國區	 朴煥太 61년 法大卒 民自・13대議員 慶南 南海-河東	 姜信玉 61년 法大卒 民自・13대議員 全國區	
 車秀明 63년 法大卒 國民・辯護士 慶南 蔚山南	 丁璋鉉 63년 法大卒 國民・금강개발대표 全國區	 郭正出 63년 法大卒 民自・前議員 釜山 西	 康容植 63년 法大卒 民自・前총리비서관 全國區	 韓和甲 63년 文理大卒 民主・정당인 全南 新安	 朴實 63년 文理大卒 民主・13대議員 서울 銅雀乙	 裴命國 62년 行政大學院卒 民自・13대議員 慶南 鎮海-昌原	 安武赫 62년 大學院卒 民自・前安企部長 全國區	

 韓光玉 文理大(60년入學) 民主·13대議員 서울 冠岳甲	 朴範珍 64년 文理大卒 民自·정당인 陽川乙	 金鍾河 64년 文理大卒 民自·前議員 慶南 昌原甲	 鄭昌鉉 64년 農大卒 民自·정당인 京畿 烏山-華城	 咸錫宰 63년 法大卒 民自·辯護士 忠南 天安郡			
 鄭相千 64년 行政大學院卒 民自·前서울市長 釜山 中	 河舜鳳 64년 師大卒 無所屬·前議員 慶南 晉州	 玄敬大 64년 法大卒 無所屬·前議員 濟州 濟州市	 崔秉烈 64년 法大卒 民自·勞動部長官 全國區	 趙舜衡 64년 法大卒 民主·前議員 서울 道峰丙	 鄭璣浩 64년 法大卒 民主·辯護士 忠北 清州乙	 邊精一 64년 法大卒 無所屬 辯護士 濟州 西歸浦-南濟州	 金榮秀 64년 法大卒 民自·前安企部1次長 全國區
 朴燦鍾 65년 商大卒 新政·13대議員 서울 瑞草甲	 柳興洙 65년 法大卒 民自·前議員 釜山 南區乙	 朴哲彦 65년 法大卒 民自·13대議員 大邱 壽城甲	 金榮駟 65년 法大卒 民自·前청와대비서관 慶南 金海	 李敏燮 65년 文理大卒 民自·13대議員 江原 春城郡楊口驛蹄	 金德龍 文理大(61년入學) 民自·13대議員 서울 瑞草乙	 朴柱千 65년 工大卒 民自·정당인 麻浦乙	 崔雲芝 64년 行政大學院卒 民自·13대議員 全國區
 鄭大哲 67년 法大卒 民主·13대議員 서울 中區	 朱良子 66년 大學院卒 民自·醫保公團理事長 全國區	 朴泰榮 66년 商大卒 民主·教保副社長 全南 潭陽-長成	 黃寅性 65년 行政大學院卒 民自·아시아나항공會長 全北 鎭安 茂朱 長水	 許京萬 65년 司法大學院卒 民主·13대議員 全南 順天	 姜詰善 65년 司法大學院卒 民自·辯護士 全北 沃溝	 黃珞周 65년 商大卒 民自·13대議員 慶南 昌原乙	 李承潤 65년 商大卒 民自·13대議員 仁川 北乙
 辛基夏 70년 司法大學院卒 民主·13대議員 光州 東區	 李富榮 69년 文理大卒 民主·黨최고위원 서울 江東甲	 金元吉 68년 商大卒 民主·증권일보사장 서울 道峰乙	 李揆澤 68년 師大卒 民主·정당인 京畿 驪州	 張石和 68년 法大卒 民主·13대議員 서울 永登浦甲	 白南治 68년 法大卒 民自·13대議員 서울 蘆原甲	 文喜相 68년 法大卒 民主·前JC會長 京畿 議政府	 洪思德 68년 文理大卒 民主·前議員 서울 江南乙
 柳寅泰 74년 文理大卒 民主·정당인 서울 道峰甲	 李康斗 73년 行政大學院卒 無所屬·前駐소련公使 慶南 居昌	 李鍾贊 72년 行政大學院卒 民自·13대議員 서울 鍾路	 李仁濟 72년 法大卒 民自·13대議員 京畿 安養甲	 金元雄 72년 文理大卒 民主·前議員 大田 大德	 李協 71년 法大卒 民主·13대議員 全北 裡里	 金炯旼 71년 文理大卒 民自·前청와대비서관 釜山 影島	 吳坦 70년 司法大學院卒 民主·13대議員 全北 全州-德津
 李哲 88년 社會大卒 民主·13대議員 서울 城北甲	 李東根 行政大學院(79년入學) 民主·13대議員 全國區	 諸廷圻 80년 社會大卒 民主·사회운동가 京畿 始興-軍浦	 李錫玄 78년 法大卒 民主·정당인 京畿 安養乙	 元惠榮 文理大(73년入學) 民主·정당인 京畿 富川 中區乙	 李海瓚 文理大(72년入學) 民主·13대議員 冠岳乙	 鄭夢準 75년 商大卒 國民·13대議員 慶南 蔚山東	 姜在涉 74년 法大卒 民自·13대議員 大邱 西乙

▲鄭然世 (57년工大) 卒・한국
장・本會
理事 3
월 11일 서울船級協會에서 열
린 사단법인 한국선급 제 30
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
출됨.

▲高建 (60년文理) 大卒・前
서울시장
2월 27
일 원광대에
학원을 받
음. 서. 명예법학사
일 후 3시 삼익약기사가
당에서 92년도 한국약업협
가 협회 선정 유망상을 수상.

▲辛慶烈 (61년普大) 卒・성약
가 11최근
서울예술
고등학교
제 4대 교장으로 취임.
▲曹道根 (61년 師大卒・
인하대학교수) 2월 22일 한국
사회과학회 학회 정기총회에
서 회장에 선출됨.

▲金玉照 (63년 法大卒・
本會理事) 3월 5일 안기부
장 특별보좌관에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됨.
지 뉴질랜드 오를랜드에서
개최된 제 15차 아시아 태평
양치과회의에서 아. 태치과
협회(APDF) 부회장에 선
출됨.

▲梁精康 (62년齒大) 卒・本會
理事 3
월 8일 부
* 김경환(88년 農大卒)・
공헌정양 4월 4일 2시.
* 이경원(84년 工大卒)・
정미향양 4월 4일 3시 30
분.
* 이승연(88년 法大卒)・
김진주양 4월 5일 11시 30
분.
* 김종희(90년 工大卒)・
박정애양 4월 5일 2시 30
분.
* 이기재(90년 全수경양 89년
師大卒) 4월 5일 3시 30
분.
* 고강호(90년 金의정양 89년

權景坤 新임 大韓藥師會會長

지난 2월 29일 열린
大韓藥師會 대의원총회
에서 전국 3만 5천여
藥師를 대표하는 28대
회장에 선출된 權景坤
(60년 藥大卒) 등원은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직능단체의 장으로
서 집단의 이익만을 추
구하기 보다는 미래를
나다보며 보다 확실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단
체가 되도록 하겠다

국보의원장(9) 보사
부의약유통구조개선자
문위원(81) 大藥부회장
(83) 85 보사부총장
심위원(87) 現 보건교
육자문위원(90) 現 약
사공론주최를 역임해
온 그는 앞으로 임기중
안 약국의료보협의 정
착, 의약품규제철거
확

키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權은
藥界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바
로잡고 한편 꾸준한 공
보를 통한 위상정립을
도모하겠다고 말한다.
국민 75% 이상이 1
차 진료기관으로 약국을
선택하고 있고 세계에 서
유일하게 약국의료보험
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
로서는 지금이 약계에
대한 인식의 일대 전환



權景坤 新임 大韓藥師會會長

政策代案 제시하는 團體필터

의약품 流通질서 確立에도 裨선

두것다고 밝혔다.
지난 88년도에는 의
약협업추진위원회의 구
성과 북포시 의약분업
시범사업의 실시기반조
성에 기여한 공로로 제
27회 藥의賞을 수상한
바 있는 權은 이번 부인
金順子(61년 藥大卒・현
안양국립(88)女藥사)를
비롯한 4男妹 모두가
서울대인으로 본회에 소

다. 한편 차녀 哉希양과
차남 圭均은 醫大에
재학중이다.
「현재 약국이나 약사
에 대한 국민 인식이
실상에 비해 올라가
못한 쪽으로 흐르고 있
는데, 약사는 단순히 약
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
니라 인간의 생명을 다
루는 과학자란 새로운
藥師像을 세우고 인식시

을 이루어야 할 시기」라
는 것을 재산 강조하는
權은 의회장 취임에 맞
아 그들 아는 주위에서
는 앞으로 大藥이 「불평
요한 사업의 정리와 우
선사업순위 선정에 의한
실의추구」의 義務로
일대방향을 전환하리라
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데, 이는 평소 그의 생활
철학인 「能小而能大」 즉

“藥師는 生命을 다루는 科學者” 인식 필요

작은 일부터 충실하자는
지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앞으로 大藥의 업무
전산화와 병행하여 藥界
의 계수·기초조사를 통
해 보다 정확하고 타당
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
이라고 말하는 權은
회장을 맡아 당시 제시했던
△정책실명회 개최△상
임위원회 전문화△약사
건강진단 등 회원복지사
업에도 임기중에 차례
로 구현해 나갈 것이라
고 한다.
韓醫師였던 先親에
이어 자신과 자녀들까지
3대째 이어온 藥藥人
일가로서 大藥의 서울대
인시대를 개척한 장본
인으로 그가 앞으로
풀어나가 할 문제들
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
이었지만 자신과 가족들
의 오늘이 있기까지 모
교와 동문들이 베풀어준
은혜에 항상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
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서울대인으로서는 자
라 생각한다는 權은
은 끝으로 약사들이 본
연의 임무를 보다 깊이
인식하고 자신을 희생한
다는 각오로써 최선을
다 하겠지만 국민들도 기
존의 시각을 재고하여
약계가 국민복사라는 본
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
도록 도와달라고 당부
하기를 잊지 않는다.
(金庚勳기자)

하

- ▲金熙喆(43년 工大卒・
前인하대총장) 3월 7일 오
전 미국에서 신병치료를 귀
국 중 별세. 향년 71세.
- ▲李相殷(63년 商大卒・대
유통상회장) 3월 17일 오후
6시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별세. 향년 52세.
- * 남병욱(87년 工大卒)・
조윤구양 4월 12일 2시.
- * 조정제(88년 師大卒)・
박숙현양 89년 師大卒 4
월 12일 3시 30분.
- * 정사모(82년 工大卒)・
윤미정양 4월 17일 1시.
- * 임완호(90년 社會大卒)・
김진숙양 4월 18일 11시
30분.
- * 김진중(87년 經營大卒)・
김지현양 4월 18일 1
시.
- * 장중희(89년 社會大卒)・
남진경양 4월 18일 2시
30분.
- * 변재상(89년 法大卒)・
박의진양 4월 19일 12시 30
분.
- * 옥순영(90년 工大卒)・
김동희양 4월 21일 1시.
- * 남두우(88년 社會大卒)・
이명희양 4월 21일 2시
30분.
- * 김인회(91년 法大卒)・
박승연양 4월 24일 12시.
- * 정문선(86년 師大卒)・
손미라양 4월 24일 3시 30
분.
- * 강동선(88년 經營大卒)・
윤경아양 4월 25일 12
시.
- * 유상현(89년 保健大學
院卒)・김혜숙양 4월 25일
1시 30분.
- * 김홍배(87년 大學院卒)・
김보연양 4월 25일 3
시.
- * 박인선(90년 醫大卒)・
김지연양 4월 26일 11시 30
분.
- * 임현진(90년 經營大卒)・
장희선양 4월 26일 1
시.
- * 박찬구(87년 人文大卒)・
양미경양 4월 26일 2시
30분.



▲朴泰植
(47년農大)
卒·母校
명예교수
단법인 한국
국립정책연구회장에 선출됨.



▲李元淳
(49년師大)
卒·母校
명예교수
민중문화추진회 제3대 회장에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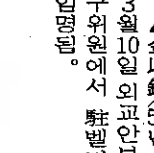
▲李應百
(49년師大)
卒·母校
명예교수
한국수필문학진흥회장으로 3월28일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제10회 현대수필문학상 시상식을 가짐.



▲韓都淵
(53년師大)
卒·산정
정소년수련원장·
본會理事
2월19일부터 3월20일까지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지역 교육·문화활동을 시찰하고 귀국.



▲成樂正
(54년工大)
卒·本會
理事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
3월3일 외부본부대사에 서 파키스탄대사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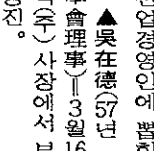
▲金正勳
(54년商大)
卒·本會
理事
3월10일 외교안보연구원 구위원에서 駐벨기에대사에 임명됨.



▲金興起
(57년文理)
大卒·本會理事
3월7일 錦湖석유화학사에서 同社 회장으로서 승진.



▲李龍兌
(57년文理)
大卒·삼보컴퓨터 회장·本會理事
3월18일 신산업경영대상 시상식에 의해 92년도 신산업경영인에 뽑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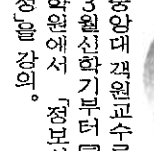
▲吳在德
(57년 法大卒·本會理事)
3월16일 한국화약(주)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



▲白承祚
(57년商大)
卒·3월6일 朝興증권상무에서 사장으로 승진.



▲孫東皓
(57년商大)
卒·2월26일 조흥은행상무에서 감사에 선임됨.



▲申允植
(59년文理)
大卒·네이콤 사장·本會理事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



▲康希淨
(60년文理)
大卒·5월13일 한국석션학교 학장으로 취임함.



▲裴成東
(60년文理)
大卒·前國會議員
3월9일 國會議員로 재임함.



▲盧昌熙
(60년商大)
卒·本會理事
부대사에서 외무부 차관에 임명됨.



▲柳鍾卓
(61년文理)
大卒·최근국회행정차장에 서임됨.



▲梁東七
(62년文理)
大卒·本會理事
2월27일 駐오스트레일리아대사관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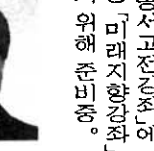
▲宋熙華
(61년農大)
卒·本會理事
3월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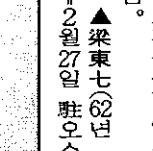
▲禹仁性
(62년工大)
卒·삼보렌트카 사장·本會理事
2월26일 제3대 한국대여자동차사업조합 이사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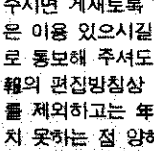
▲朴承寅
(62년農大)
卒·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회장
泉文化財團 상임이사로서 3월5일 泉文化財團에 이어 4월중 '미래지향강화'를 개설하기 위해 준비중.



▲金鍾球
(62년文理)
大卒·本會理事
3월5일 고속전철사업기획단장에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에 선임됨.



▲梁東七
(62년文理)
大卒·本會理事
2월27일 駐오스트레일리아대사관에 취임.



▲洪性雄
(62년商大)
卒·국토개발연구원 원장
3월13일 國土院에서 회장으로 선임됨.



▲崔洛天
(62년文理)
大卒·3월10일 외교협회 사무총장에 서임됨.

동(動)과 정(靜)의 조화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 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단, 本報의 편집방침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年3회 이상 게재치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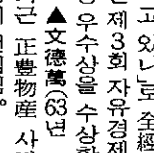
電話 : (702) 2233~5
FAX : (703) 0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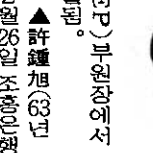
▲申鐵淳
(63년工大)
卒·前삼성전자정기기사업부장
1월20일 동양전자통신주식회사(OTELCO) 대표이사장에 취임.



▲郭秀一
(63년商大)
卒·母校교수
3월11일 제인클럽에서 李經世로 가교되어 全經聯이 제정한 제3회 자유경제출판문화상 수상상을 수상함.



▲文德萬
(63년商大)
卒·本會理事
최근 正豐物産 사장에서 회장에 선임됨.



▲柳莊熙
(63년商大)
卒·3월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에 선임됨.



▲吳世榮
(65년文理)
大卒·母正지용문
학상 수상자로 선정됨.



▲姜基遠
(64년法大)
卒·변호사·최근 여성변호인회 초대



▲元佑鉉
(65년法大)
卒·고려대학교수
P.R 협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됨.



▲洪文信
(65년商大)
卒·한국간접회장
2월26일 同院 주주총회에서 원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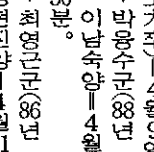
▲金正泰
(70년商大)
卒·前한신경제연구소 전무
28일 韓信기술개발공(주) 사장에 선임됨.



▲金泰天
(70년新聞)
大卒·前大學院卒·대한증권협회



▲柳哲鈞
(88년人文)
大卒·前가나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로 제1회 작가세계문학상을 수상함.



▲金鍾用
(78년工大)
卒·前아트박사장·최근 삼성출판사 사장에 취임.

同窓會館 冠岳홀

· 박종근(85년 農大卒) · 정진희(84년 4월4일 12시30분)

· 원관희(86년 師大卒) · 이남숙(84년 4월11일 12시30분)

· 최영근(86년 工大卒) · 강현진(84년 4월11일 2시)

· 이상선(88년 工大卒) · 이항희(84년 4월11일 3시30분)

· 원관희(86년 師大卒) · 이남숙(84년 4월11일 12시30분)

· 고경선(86년 人文大卒) · 이남숙(84년 4월11일 12시30분)

停年退任교수 열분의 일

「英國史概說書」집필 계획



羅鍾一 교수
人文大 시양사학

52년 모교 文理大 사학과를 나와 68년부터 20여년 이상을 서양사학과에 재직해온 羅교수는 영국사연구중 특히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과정」에 있어 심도있는 업적을 이루어 놓았다. 학문을 위한 학문은 소용이 없다. 학문을 위하는 羅교수는 삼과 칠부된 학문을 통해 사회의 소용이 되는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영국근대사연구」, 「서양문화사」 등의 저서가 있으며 한국서양사학회장을 역임했다. 퇴임후에는 영국사개설서와 영국현명애 관한 책을 집필할 계획이라고.

“自身에게 떳떳하고자 했던 삶”



邊衡尹 교수
社會大 경제학

「인도의 한숨」으로 퇴임의 붓을 대신하는 邊교수는 51년 商大를 졸업하고 57년부터 모교 강단에서 왔다. 그간 한국경제학회 회장, 商大 학장, 교수협의회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아오는 한편 80년 解職되어 「백34인 시국선명」을 내면서 해직교수협의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4년만에 復職되어 각종 단체와 시국선명에 참여하면서 현재 경제발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는 이를 「떳떳하고자 했던 삶」이라 말한다. 웅성한 연구욕으로 「한국경제론」, 「분배의 경제학」 등 20여권의 저서가 있다.

自然大 학장, 副總長 등 역임



高允錫 교수
自然大 물리학

54년 모교 物理學科를 졸업, 65년 부임 이래 자연대 학장, 자연과학종합연구소장, 부총장, 정의원회장의 보직을 맡아오면서 전공분야 연구와 교육행정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현재 모교 물리학과는 교수진, 교육과정과 학생수성등 어느모로 보나 국제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高교수는 재직기간중 이러한 성과를 이루는데 일조한 것을 보람으로 여긴다. 한국물리학회장으로서는 원자핵물리학과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의학상(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基礎科學 발전 이끈 장본인



李洙淵 교수
自然大 물리학

64년 이래 師大 과학교육과와 自然大 물리학과에서 과학교육의 연구와 교육에 전념해온 李교수는 咸興에서 일한 후 모교에 입학, 57년 物理學科를 졸업했다. 입학을 물리학에 관한 왕성한 연구활동으로 두리조과 학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린 장본인 이기도 한데, 「일부 이론물리학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있는데 앞으로 활발한 산학협동과 시설투자로 이를 증폭시켜야 한다.」 부인(총천교대 교수)과 막내아들(모교대학원생)이 모두 물리학자 가족들이기도 하다.

學問연구와 後學육성에 반평생을 바쳐온 모교 교수 열분이 지난 2월 29일 정년퇴임했다.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기리는 의미에서 한마디의 말을 받아 실는다.



玄正駿 교수
自然大 천문학

天文學 대중화에 관심

모교에 천문기상학과가 창설된 58년부터 재직해온 玄교수는 우리나라 천문학의 발전과 궤를 함께해온 산증인으로 국내 천문학계의 代父. 65년 한국천문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했고, 국립천문대의 발족에도 기여가 크다. 48년 모교 物理學科를 졸업한 玄교수는 「천문학의 대중화가 머지않을 것」이라며 「이 분야에 갖는 흥미와 매력 때문에 퇴임후에도 연구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한다. 「지구과학개론」, 「별·銀河·宇宙」 등의 저서가 있다.

모교에 土地 2만 6천평 기증



牟壽美 교수
家政大 식품영양학

「가정학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과 인류복지의 향상에 있다.」며 「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사회에의 공헌으로써 배움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는 牟교수는 60년 이래 農大와 家政大에 재직하면서 응용영양학과 영양지도시스템 등에 관해 약 115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유니세프와 국가기관에서 보건영양사업에 참여해왔다. 75년 大學院에서 農博을 취득한 牟교수는 지난해 11월 부군인 李基寧(醫大 명예교수) 박사와 함께 2만 6천평의 토지를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立身揚名위한 학문은 빛 못봐”



金東垣 교수
工大 기계설계학

64년 모교에 부임, 기계설계에 서미개척분야인 소성학(塑性學) 분야의 연구에 기여해온 金교수는 그간 대한기계학회장과 공업교육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한편 작년 6월에는 한국소성가공학회장을 겸임하기도 했다. 「학문은 더 이상 빛을 볼 수가 없다.」며 무한한 학문을 남기는 것이 배움의 이치라고 말하는 金교수는 「기계화학술상」과 「모란장」을 수상하며 있으며, 「기계공학」, 「소성학」 외에 수많은 저서로써 연구업적을 일구어 왔다.

“농업은 地球를 보존하는 産業”



許文會 교수
農大 농학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벼품종연구의 大家 許교수는 54년 母校를 졸업하고 60년도부터 農大에서 육종학에 대한 연구를 진화해온 許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특히 多收性 벼 품종을 육성, 전국 벼수확 4천만 석 달성에 기여했다.」 「농업은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필수불가결한 생존산업」이라고 말하는 許교수는 「앞으로 농산물유종등에 특별한 인식과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작물회화장·육종학회장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육종개론」, 「作物育種」, 「육종학」 등이 있다.

원격탐사 분야 등 研究업적 커



金甲德 교수
農大 임학

「밤새기가 가까운 기간을 서울대학교에 몸담아 온 것이 큰 자랑이다.」 행복이라고 말하는 金교수는 50년 農大를 1회로 졸업하고 56년부터 모교에서 산림측정학·항공사진관측학·원격탐사론 등의 강의를 맡아왔다. 특히 원격탐사와 산림측정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남겨 「한국임학회」 분상(73년), 「국민훈장 목련장(82년)」을 수상하기도 했다. 입산에서 화학회장 산림측정연구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저서로는 「산림측정학」, 「사진관측 원격탐사」 등이 있다. 퇴임후에는 전문서 이외의 독서를 하겠다고.

“독창회등 公演활동 자주할터”



安亨一 교수
音大 성악

「비록 나이는 정년이지만 음악에 정년이 따로 있겠냐.」는 安교수는 53년 모교를 졸업하고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 음악계를 이끌어 오면서 자신이 직접 태너로서 순환전을 비롯 20회의 오페라, 1백 40여회의 음악회를 개최했다. 62년부터 모교에 봉직해온 安교수는 「오늘날 예술교육이 사회교육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면서 「실기를 보다 강화해 이론과 실기를 양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요즘 오페라 「라보레」의 연습에 여념이 없다며 앞으로는 그간 못했던 독창회나 지방공연에 신경써야겠다고.

1월 20일 ~ 3월 2일까지

人名 밑 원내 숫자는
卒業年度

● 一般會費	1만원
● 理 事	5만원
● 常任理事	10~20만원
● 監 事	30만원
● 副 會 長	50만원
● 會 長	100만원

▲김정민	▲김준민	▲김성기	▲김명자	▲김덕룡	▲김구홍	▲고문환	▲강승렬	▲강기진
60	60	65	66	56	63	66	66	70
▲김영호	▲김승환	▲김성규	▲김병택	▲김명섭	▲김규완	▲고병국	▲고광희	▲장병택
69	49	58	56	57	60	50	71	74

[illegible]

公演

■ 월드십포니 정기연주회

- 4월 1일 예술의전당
국내 최초로 여성지휘자(朴順德·75년 普大卒)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교향악단의 5번째 정기연주회. 박동문은 로마 산타체칠리아 콘서바토리를 심사위원 전원 단점으로 졸업한 귀재. 이번 연주회에는 최성욱(피아노·피어선대학전입)의 협연으로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3번c단조 Op37과 멘델스존의 교향곡 5번 D단조 Op107 종교개혁이 온다.

■ 김용환 피아노독주회

- 4월 7일 예술의전당
모교 普大졸업(84년)후 독일 하노버普大를 거쳐 프랑크푸르트음대에서 Diplom을 취득한 김용환은 스위스·독일 등 유럽을 무대로



◇ 김용환(피아노)

연주활동을 하다가 지난해 귀국, 현재 선화·안양예고·호신대에 출강중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하이든, 베토벤, 스크랴빈의 소나타와 슈만의 Camaval 9번이 연주된다.

주·목·발·는·서·울·대·인

다. 세계 각국에서 1백여명이 참가한 이번 콩쿠르에서 뛰어난 테크닉과 음악성을 보여준 피아니스트란 평을 받으면서 우승한 박동문은



◇ 박동문

피아니스트 박동문(86년 普大卒)은 지난달 20일 뉴욕에서 개최된 제20회 영아티스트 인터내셔널콩쿠르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來年 2월 「카네기홀」서 데뷔무대

내년 2월 카네기홀에서 독주회를 갖고 국제무대에 데뷔하게 된다. 이 공훈은 73년 뉴욕에서 L. B. Ruiz에 의해 창설됐는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 음악가들을 발굴, 카네기홀에서 데뷔를 시켜주는 대회로서 엄격한 심사위원을 자랑하고 있다. 박동문은母校를 거쳐 줄리아드대학원 석사, 매네스 음대프로페셔널디플로마를 취득했으며, 현재 뉴욕 시립대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오는 6월 30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리안실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을 가질 예정이다.

美영아티스트콩쿠르우승

■ 金在美 피아노독주회

- 4월 25일 세종소강당
88년 모교 普大를 실기수석·우등으로 졸업하고 美인디애나 碩士를 거쳐 보스턴음대 박사과정 Admission을 획득한 김동문의 귀국



◇ 金在美(피아노)

후 두번째 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카사루디안의 토카타와 베토벤 소나타 31번 Op110 A플랫장조, 슈만이 연주된다.

■ 서울챔버앙상블 정기연주회

- 4월 11일 예술의전당
「室內樂을 통한 차원높은 예술적 정신의 도달과 클래식인구의 지인확대」를 기치로 지난해 金은차(63년 普大·음악감독 겸 피아노)등에 의해 창단된 앙상블의 두번째 연주회. 음대教授, 교향악단원 등으로 구성된 팀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레퍼터리와 다양한 멤버구성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예찬(바이올린) 김철호(첼로) 강려진(하프) 허윤선(플루트) 김신자(메조소프라노)등이 불려, 리네커, 브람스, 스트라우스를 연주한다.

■ 바리톤 金東運독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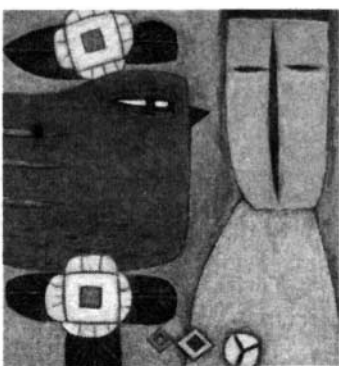
- 4월 24일 예술의전당
김동운(84년 普大卒)중문은 그간 독일 만하임普大를 거쳐 프랑

스 스트라스버그 콘서바토리를 졸업하면서 가곡 아리아 종교음악 연주회에 출연, 호평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의 마니피캇, 헨델의 메시아를 비롯, 볼레 브람스 스트라우스 바버 라벨의 聲樂



◇ 金東運(바리톤)

곡이 온다.
■ 洪淳美 피아노독주회
- 4월 4일 예술의전당



話V Conversation V 400 x 400
Acrylic Oil pastel 1991

新刊

■ 편연록

- 韓國男著(52년 醫大卒·한국남산부인과원장)

저자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실제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법을 비롯, 性의학에 대한 지식을 골프에 빗대 흥미있게 쓴 칼럼집. <3백81쪽·5천원·성하刊>

■ 변학기의 詩와 文化

- 金容稷著(58년 文理大卒·모교教授)

각박하고 살풍경한 시대를 止揚하는 磁場으로써 「詩와 文化」를 주창하며 저자가 평소 적어온 편린들을 모아놓은 책. <417쪽·5천5백원·서울대출판부刊>

75년 모교 普大를 졸업하고 南加州大에서 DMA를 취득한 洪淳美는 피아노 외에 하프시코드연주에도 남달리 조예가 깊다. 풍부한 연주경험과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작품 소개에 앞장서온



◇ 洪淳美(피아노)

그의 이번 무대에서는 하이든, 바르톡, 스크랴빈, 슈만이 연주된다.

展示

- 田甲培(75년 美大卒·서울시립대教授)

■ 잃어버린 날들 열려진 말들

그의 그림을 특징지우는 것은 민화적인 색채이다. 아슬아슬한 내비와 새, 닭과 거북, 꽃과 나무, 사람 등의 소재가 연관성을 축으로 상호간에 구체적인 연결성을 지닌채 비교적 넉넉해 보이는 공간속에 흩어져 있다. 이로써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지휘를 감추고 그림의 기억으로나 남은 생명의 모습과 그 어우러짐을 떠올리게 된다.-이대일(명지대 교수)의 評중에서-

■ 생각하는 삶 행동하는 삶

- 尹泰林선생 追慕事業會編

지난해 2월 他界한 尹泰林(35년 法大卒·前속명학원이사장)선생의 1주기를 기해 제자들로 구성된 추모사업회가 펴낸 遺稿選集. 전체 4부로 나누어 사람, 제도, 회고, 세태에 관한 수필 50여편을 담았다.<205쪽·비매품·정음사刊>

■ 여자대학의 춘타는 교수

- 金相泰著(60년 文理大卒·이화여대教授)

여자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필자가 느껴왔던 斷想과 지난간 시절들의 사회상을 투영한 수필집. <510쪽·5천8백원·한실刊>

■ 국어표기법연구

- 李海燮著(60년 文理大卒·모교教授)



훈민정음 창제 이후 국어표기법이 어떻게 현행 맞춤법까지 이르렀는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간 공백으로 남아있던 16세기 이후 分綴이 확대돼간 과정과 8종성법이 7종성법으로 바뀌어간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434쪽·1만4천원·서울대학교출판부刊>

■ 피의 연대기

- 鄭奎雄著(64년 文理大卒·中央일보논설위원·문학평론가)

막강한 권력조직을 빌미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른 비밀조직의 만행을 파헤친 사회 추리소설. 고문과 의문사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시대의 어두운 이야기가 전개된다.<309쪽·4천5백원·작가정신刊>

■ 한국의 현대미술 무엇이 문제인가

- 安輝濤著(67년 文理大卒·모교教授·박물관장)

우리나라 현대미술계와 평론계가 지향할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대학에서의 교육과 사회미술교육에 관한 문제점 그리고 시정방안들을 담고 있다. 부록으로 북한의 현대미술을 기술.<189쪽·3천원·서울대학교출판부刊>

■ 農사랑·일·티의 가치와 역할

- 成建근著(68년 農大卒·충북대教授)

UR협상으로 전면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농업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4백4쪽·6천원·유문화사刊>

■ 도시민민의 삶과 공간

- 曹恩(69년 文理大卒·동국대教授)趙玉羅(73년 文理大卒·서강대教授)共著

이른바 「불량주거지」 사람들의 생활을 참여관찰, 설문조사, 심층면담 등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정책입안자와 일반에 재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다.<167쪽·4천원·서울대학교출판부刊>

